인도서 3~9C 불교 번성 추정 지역 발견

고고학조사단, 구자라트 주 바드나가르시서

인도에서 고대 불교 수도원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도 언론 '인디아 익스프레스'는 6월 20일(현지시간) "인도 고고학 조사단(The Archeological Survey of India, ASI)이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 주(州)의 바드나가르 시에서 불교사원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발굴했다"며 "그동안 과거 바드나가르가 불교 중심지였단 가설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 보도했다.



인도고고학조사단(ASI)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 주(州)의 바드나가르 시에서 사원 터 등 불교 유적지를 발견했다. 사진출처=인디아 익스프레스

현장 스님 인도 여행기 〈대당서역기〉 언급 지역
현재 3~9C 6~7개 사원 수도실 흔적 발굴
야금 작업 위한 고기능 수도 시스템도 갖춰
4,000여개 불교 유물도… "역사적 발견"

발굴단 책임자 마둘리카 사만타(Madhulika Samanta)는 "가장 최근 진행된 발굴작업서 사원 암자로 보이는 구조를 발견했다"며 "좀 더 조사를 진행해 이곳이 실제 사원이었는지, 일반 가옥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나렌다 모디 인도 총리 취임 후 2015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2단계에 걸쳐 바드나가르 조사를 실시, 현재까지 6~7개의 사원 수도실을 발굴했다. 지역 콘크리트 건물 때문에 발굴이 더뎌지고 있지만, 발굴단은 그곳이 사원 터였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만타는 "바드나가르가 과거 불교 번성지역이었단 사실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며 "사실입증을 위해 더 넓은 지역으로 발굴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 델리 시에 발굴 허가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라 말했다.

ASI의 이러한 추정은 현장 스님의 역사적 자료서 비롯된다. 조사 지역은 마헤사나 구역으로 서기 620년대 현장 스님의 인도 여행기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 언급된 바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불교 중심지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사만타는 "현장 법사 책에는 '오난토프로 혹은 아난드푸라(바드나가르의 옛 명칭) 지역에 10개의 불교사원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미 2007년 바드나가르서 실시된 발굴 작업서 2~4세기 추정 불교 사원과 12개 주거 공간들이 발견됐다. 현장 스님의 책 내용들이 실제로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굴해야 할 지역들은 3~9세기 것들로 추정되며, 3단계에 걸쳐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 덧붙였다.

사만타의 증명에 따르면, 발굴지역 북쪽을 비롯해 남동 · 북서 · 서남쪽으로 사각형태의 베란다가 놓이고 커다란 광장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쪽 입구엔 최소 2~3단계에 걸친 축조작업이 진행된 흔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사만타는 "역사적으로 최소 3차례 건물이 증 · 개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밖에도 야금(冶金; 광석에서 금속을 추출, 정련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필요한 형상으로 만드는 기술) 작업을 위한 물 공급 시스템이 갖춰졌던 흔적도 발견됐다.

사만타는 "야금작업을 위해 훌륭한 급수 시스템이 있었단 사실을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무엇보다 4군데서 4,000여개 이상의 유물을 발굴한 것도 조사단의 큰 업적이다. 종교의식에 사용된 아야카 스투파와 비슷한 조각상을 비롯해 지중해인들이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도자기, 다른 시대에 사용된 구리 동전 1,200개 등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 유물들을 통해 ASI는 바드나가르 지역이 국제무역을 하던 실크로드와 연결된 곳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발굴단은 마을 크기가 현재 추측되는 것 보다 훨씬 대규모였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2,000년 역사를 보유한 바드나가르 마을은 사르미슈타 호수 주변에 터를 잡고, 기원후 12세기엔 쿠마라팔라 왕조의 보호를 받았다. 이보형 객원기자

日스님, 로봇회사 CEO로 '투잡스'

'ZMP' 최고경영자 히사시 타니구치 스님 '화제'
"부처님 가르침은 경영철학에 매우 중요"

일본의 로봇회사 ZMP 최고경영자가 불교 승려란 사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히사시 타니구치(Hisashi Taniguchi)는 스님으로서 수행생활과 동시에 로봇공학 연구에도 열심이다. 일본 서부에 있는 사찰로 순례를 떠날 무인 택시와 드론(drone)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바로 그것이다.

과학기술 전문 소식지 'Bloonberg Technology'는 6월 22일 "타니구치 스님은 승려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 공부했으며, 마침내 구족계를 수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청바지와 빨간색 컨버스 운동화를 꺼내 신고 도쿄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간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는 한편, ZMP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로서 그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고 보도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명상을 한다는 타니구치 스님은 불교의 헌신과 친절이란 가르침이 경영철학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한다. 평소 직원들에게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피하고, 침착한 업무 태도를 유지할 것을 교육하는 것도 불교적 가치관서 비롯됐다.



ZMP 최고경영자이자 일본 승려로 활동 중인 히사시 타니구치 스님.

그는 "불교는 '내 스스로가 빛나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함께 밝힐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는 유용한 제품이 만인에게 이로움을 준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니구치 스님은 "이 세상에 많은 승려가 있지만, 로봇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은 없다. 이 방식은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ZMP는 AI · 자율주행차 · 로봇 등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이다. 소니와 함께 공동 출자형태로 법인용 드론 서비스 제공 기업을 설립했으며, 지난 3월엔 일본 최대 게임업체 디엔에이(DeNA)와 함께 자율주행 택시를 시험운행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태국 불교계, 잇따른 불법 행위로 '얼룩'

프라 담마차요, 470억 횡령 혐의… 신도들 경찰 막아서



태국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은 전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방콕 북부 파툼타니주(州)에 있는 담마까야 사원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수백억 원의 돈 세탁 및 횡령 혐의를 받는 태국의 고승이 수천명의 신도를 동원해 경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을 무력화했다. 사진출처=뉴욕타임즈

승왕(僧王) 후보가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승려들은 부패와 탈세를 일삼거나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등 태국불교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문제가 일어났다. 수백억 원의 돈 세탁 및 횡령 혐의를 받는 태국의 고승이 수천 명의 신도를 동원, 경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을 무력화한 것이다.

'뉴욕타임즈' 및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6월 17일(현지시간) 태국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은 전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방콕 북부 파툼타니주(州)에 있는 담마까야 사원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신도들은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사원으로 몰려들었으며, 경찰이 체포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에도 자리를 지키고 앉아 설법을 들었다.

경찰, '담마까야' 압수수색 시도
수천 명 신도 몰려들어 무력화
출두 명령 부인하며 의구심 키워
다른 스님들도 성폭행 등 각종 혐의

신도 완나파럭 분사쿨차로엔(24) 씨는 "그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을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나 스스로 헌신할 수 있다고 기도하며, 이러한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사원을 대표하는 승려인 프라 담마차요가 거액의 자금을 세탁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사원 수색을 시도했으나, 수천 명의 신도들이 경찰의 사원 진입을 가로막아 무력화했다"고 전했다.

담마까야 사원은 320만㎡에 달하는 부지에 150여 개 건물이 들어서 있다. 프라 담마차요는 거대한 황금빛 우주선 모양의 사원을 건립하고 1970년대부터 수백만 명 신도를 보유, 대규모 불교 행사와 종교의식을 개최해 왔다.

하지만 프라 담마차요가 약 14억 바트(한화 약 470억)를 돈세탁 한 혐의를 받음으로써 태국불교의 이미지를 또 한 번 실추시켰다.

태국언론은 "프라 담마차요는 태국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한 11억 3천700만바트(약 380억원) 상당의 수표를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다 들통났다"며 "그런데도 불교원로회의는 자체 조사 끝에 프라 담마차요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그를 감쌌고, 정부도 이 돈을 사원 명의의 헌금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무혐의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자금세탁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DSI가 수차례 프라 담마차요를 소환했지만, 심부정맥 혈전증을 앓고 있다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해왔다. 그러면서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태국 승려들이 불미스런 사건에 잇따라 휘말리며 태국 불자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태국 호랑이 사원의 야생동물 밀매 혐의가 적발됐으나, 사원의 주지는 여전히 승려로서 삶을 유지하고 있다.

'Wall Street Journal' 6월 16일 자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압수수색서 호랑이 시신 및 새끼 호랑이가 든 병이 발견되며 그간 의혹으로 제기됐던 호랑이 밀매 혐의가 수면 위로 드러났으나, 사원 측 변호사는 "주지 스님은 알지 못하는 일이다. 부하 승려들이 한 일"이라며 주지를 옹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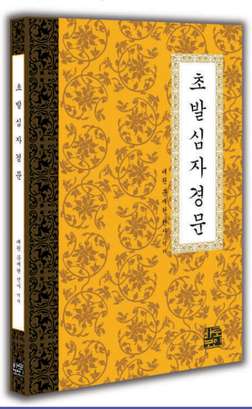
이밖에도 한 승려는 전용기를 타고 명품 가방을 걸친 사진이 공개돼 승적을 박탈당했으며, 이후 정부는 이 승려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영장을 발부, 체포하려 했으나 승려는 이미 해외로 도주했다고 알려진다. 박아름 기자 · 이보형 객원기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5권의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선가귀감
선가귀감은 깨닫고 닦아가는 비법이 고스란히 전수되어 있는 선가의 거울이라 할 만하다. 이 책은 매 소절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시송이 역대 조사와 서산대사의 의중을 꿰뚫어 보석처럼 빛나고있다.

초발심자경문
예로부터 한문 문장의 흐름을 알아 제대로 그 뜻을 새기는 힘인 문리(文理)를 터득하기 위해 화엄경을 본 사람도 초발심자경문을 새로이 독송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발심자경문은 그 문장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구성이 치밀한 명문으로 꼽힙니다. 문리 터득에 도움을 주고자 이 초발심자경문은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한 것입니다. 또한 불도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이 사람의 체험을 통한 수행지침을 실어 놓았으니 신심과 발심을 더하는 살아 있는 수행지침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천지운명
건강 120세
불자 여러분들의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20여년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 던지 민간 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천 운 사 무령 합장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로 103-35
전화 043)881-1358,881-1359 / H·P 010-4496-6060
입금계좌 : 농협 351-0862-7188-33 (예금주 : 천운사)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